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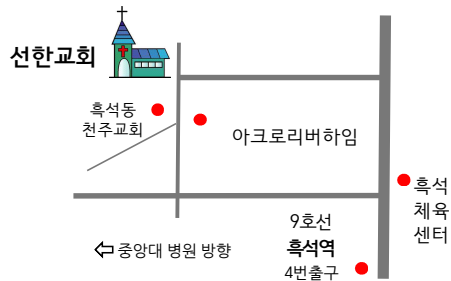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0:00 루디아회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년부	오전 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비전워십	오전 2:0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전임전도사 윤영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장 로	이태수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편도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생 라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 11:31)

기 독 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1장 (통일찬송가 46장)		
교 독 문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찬 양 과 경 배		407장 (통일찬송가 465장)		
기 도		윤호중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1장 29~31절		시 23:6
설 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임춘배 목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상도셀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오후			사회: 임춘배 목사
찬양	Joy And 찬양팀		
기도	서창덕 집사		
말씀	이사야 15장 1~9절		
설교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임춘배 목사)		
광고 및 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시편 73편 1~2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안내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는 마리아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성탄절	칸타타	17일(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3. 반찬사	역사	반찬사역에 동참하실 분들(배달)을 모집합니다. 매 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흑석동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 구제부장 김기호집사
4. 떡	제공	손정환 집사, 전희영 집사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	---

가정예배		오늘도 행복한 순례자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통347)		
본문	시편 1편 1~6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성서학자 제롬(Jerome)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서론이라고 표현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순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국의 유명작가이자 목사님인 존 버니언(1628~1688)이 저술한 '천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로역정은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읽은 서적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한 권의 책 성경을 통해 세상은 멸망할 것이며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바른길임을 확신하고 길을 떠납니다.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며 위기도 겪게 되지만, 울퉁은 믿음으로 천성 길을 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의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서론이라고 불리는 시편 1편을 통해 정말 행복한 순례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걷는 자입니다.(시 1:1)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이 있는 백성들입니다.(시 144:15) 잠시 보이는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길을 걷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 걷는 자입니다.(시 1:2) 한 사람의 말과 글은 연장된 그 사람이듯이 성령의 영감 된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살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전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걷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세 번째 성도와 함께 걷는 자입니다.(시 1:5) 교회는 의인들,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양 떼를 푸른 초장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시 1:6)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쉼과 회복과 다시 영적 무장을 하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의 인도 따라 성도와 함께 걷는 행복한 순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히 11:29~31)
서 론	큰 위협과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이스라엘의 믿음
	(1)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음(29절)
	(2)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음(30절)
	(3)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함(31절)
	2. 교훈
	(1)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믿음은?
	(2) 이방인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3)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실행해야 할 믿음은?
결 론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2부 예배 헌금		이소영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서창덕 집사	배미자 집사
주 방 봉 사	마리아회	드보라회

매일 Q.T.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르게 훈계하는 삶	날짜 : 12월 11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본문	잠언 23:1~16		
말씀요약	관원과 함께 먹을 때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에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거나 고아의 발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는 채찍으로도 훈계해야 합니다.		
목상질문 1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말씀까지 23:1~9 힘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이 주는 음식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1~3, 6~8절) 내 마음속의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목상질문 2	열 번째부터 열세 번째 말씀까지 23:10~16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13~16절) 다음 세대가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입술을 갖도록 나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요?		
한절묵상	잠언 23장 3, 16절 사람은 자극적이고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또 온갖 미미한 것은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세상 쾌락으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순간적이고 불완전하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가장 정직하고 옳은 말인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관전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보고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소서. 제 삶을 의롭게 비추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불의를 탐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며 하늘에 보화를 쌓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찬양과 기도	예수 따라가며 (새 449)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장경철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의 행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처단’이라는 놀이를 했다. 아이들을 두 팔로 높이 들어 올리면 그것을 처단이라고 불렀는데, 조금 무서워하면서도 재미있어했다. 첫째 아이는 재미를 좀 더 느끼는 편이고, 둘째 아이는 무서움을 좀 더 느끼는 편이었다. 한번은 욕실에서 둘째 아이를 높이 들고 “너 그렇게 자주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물에 빠뜨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랬더니 아이는 한참 웃다가 “아빠, 잘못했어요. 내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때 첫째 아이가 욕실에 들어왔다. 둘째는 첫째에게 “언니, 나 좀 살려 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고 해.”라고 말하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면 첫째 아이는 까불면서 덤비곤 했는데, 그날은 웬 일인지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좌변기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모습을 보고 둘째가 더 큰 목소리로 “언니! 나 좀 살려 줘!”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첫째는 낮은 목소리로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할래?”라고 말했다. 둘째가 “언니, 살려 달라니까!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릴 것 같아!”라고 다급하게 외치자 첫째 아이는 차분하게 “아빠는 너를 물에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안심해도 돼.”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야, 저것이 믿음이구나!’라고 느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위탁이며 의뢰함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위기를 작게 보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주님을 주님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
말씀 나누기	잠언 23:17~35
목상포인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술과 음식을 탐하거나 잠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지 않으며,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 준 부모를 공경하며 기쁘게 하는 데 힘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함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최후 승리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관찰과 목상	죄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나요?(17~18절)
적용하기	술에 취하고 먹기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내가 절제하고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어르신을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충성된 일꾼의 자질, 겸손하고 바른 언어 습관	날짜 : 12월 15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31장 나의 생명 드리니		
본문	잠언 25:1~13		
말씀요약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면 왕위가 의로 인해 견고히 설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와 같으며,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묵상질문 1	왕 앞에 겸손한 사람 25:1~7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6~7절)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묵상질문 2	적절한 말과 지혜로운 꾸짖음 25:8~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어떤 기쁨을 주나요?(13절) 은쟁반에 담긴 금사와 같은 언어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훈련할까요?		
한절묵상	잠언 25장 12절 책망을 듣는 일에 관대한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생각과 행동의 개선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들리기 싫은 마음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교만 때문에 우리는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발전시키는 유익한 말은 대부분 책망의 말입니다. 불편하게 들려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면 큰 유익을 얻습니다. 진리에 근거한 책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미천한 저를 복음 전하는 사신으로 세우셔서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연단되어 분별력 있게 말하고, 충성되게 행하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겸손히 간구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을 경외하며 향락을 멀리하는 삶	날짜 : 12월 12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본문	잠언 23:17~35		
말씀요약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음녀를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을 가져오기에 술 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열네 번째부터 열여섯 번째 말씀까지 23:17~25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22, 25절)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내가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열일곱 번째부터 열여덟 번째 말씀까지 23:26~35 술에 취한 인생이 맞이할 결과는 어떠한가요?(29, 32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나요?		
한절묵상	잠언 23장 24절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잘됨'의 의미를 모른 채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 유행을 따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일이 잘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잘되기를 소망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으로 '의인'이 되고, 복음을 깨달을 때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복음을 소유한 자녀야말로 가장 잘되는 인생을 삽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느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먹고 마심에는 참 만족이 없음을 기억하며, 헛된 즐거움으로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제가 선 자리부터 거룩하게 바꾸어 가게 하소서.		

매일 Q.T.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날짜 : 12월 13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본문	잠언 24:1~22		
말씀요약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도,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혜는 영혼의 꿀과 같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려집니다. 하나님과 왕을 경외해야 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목상질문 1	열아홉 번째부터 스물네 번째 말씀까지 24:1~10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요?(10절)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스물다섯 번째부터 서른 번째 말씀까지 24:11~22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16절) 내가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4장 3~4절 본문에서 집은 '가정, 교회, 국가' 같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방은 공동체 일원인 '가정의 자녀, 교회의 성도, 나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집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로 건축되고, 말씀을 분별해 순종하는 '명철'이 있을 때 견고해집니다. 또한 방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보배로 채울 때 안전하고 복된 집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을 때,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인생의 거듭된 실패로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모든 이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제 삶을 온전히 채워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매일 Q.T.		지혜의 길과 멀어지는 속임, 복수심, 게으름	날짜 : 12월 14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본문	잠언 24:23~34		
말씀요약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악인을 옳다고 하면 백성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고, 그를 견책하면 복을 받습니다. 까닭 없이 이웃에게 불리하거나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여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옵니다.		
목상질문 1	정직한 입술 24:23~28 악인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나요?(24절) 죄 없는 이웃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가 정직하게 말할 것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복수심과 게으름에 관한 교훈 24:29~34 복수심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9절) 복수심을 내려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잠언 24장 25절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단호하게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권면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를 위하는 것 같지만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으로 진리를 옹골게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세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제 마음에 크게 울리길 원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소서. 삶에 퍼져 있는 게으름을 내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힘을 주소서.		